

“이렇게 가시다니...” 종일 일손 못잡은 사람들

故 노무현 前 대통령 국민장 광주·전남 표정

DJ 추도사 불허 현 정부에 분통

탈(脫) 권위와 지역주의의 벽에 도전했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가는 길은 외롭지 않았다. 5월의 햇살은 따가웠고, 보내는 이들의 눈물도 뜨거웠다. 산천초목도 흐느껴 우는 듯 통곡 속에 영거(靈柩)는 발인됐고, 뒤덮인 애수에 장례행렬도 지연됐다. 영결식이 진행되는 동안 시민들은 흐르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고 아쉬움과 회한(悔恨) 속에 마지막 배웅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엄수된 29일 오후 11시30분 광주시 서구 광천동 종합 버스터미널, 대합실에 마련된 텔레비전 앞에 모여 영결식을 지켜보는 승객들의 표정은 어둡고 고통했다. 일부 시민들은 눈물을 주체하지 못한 채 울었다.

아직도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듯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믿지 못하겠다는 승객들도 있었다. 하지만 “대통령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

희가 남의 자취를 따라 꿈을 이루었습니다. 대통령님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라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절절한 조사가 낭독되자 대합실은 순간 오열의 바다로 변했다.

눈물을 애써 참으려는 듯 입술을 꼭 깨문 권양숙 여사의 모습이 화면엔 비추지 못했다. 영결식은 일순간 슬펐다. 담배 한 개비를 꺼낸 뒤 자리를 뜨거나, 한숨을 내쉬는 이들이 눈에 띄었다. 모두가 그라운 이를 떠나보내는 아쉬움 가득한 표정이었다.

승객 김성운(31·광주시 북구 두암동)씨는 “노 전 대통령은 누가 뭐라 해도 권위주의를 청산하고자 노력했던 소말했던 분”이라며 “그의 일생이 이렇게 끝나다니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 2시 동구 광산동 옛 전남도청 광주시민합동분향소, 조문행렬은 전날과 달리 비교적 한산했다. 조문객 100여 명이 분향소 주변에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이 엄수된 29일 광주시 서구 광천동 종합 버스터미널에서 승객들이 대합실에 마련된 텔레비전 앞에 모여 침뚫은 표정으로 영결식을 지켜보고 있다. /위작기자 jrwi@kwangju.co.kr

마련된 스크린 앞에 모여 있었다. 운구행렬이 영결식과 노제를 마친 뒤 서울역 광장으로 향하는 모습이 스크린에 비추자 조문객들은 비통한 표정으로 이를 지켜봤다. 일부 조문객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추도사를 반대하고 만장 지지대로 대나무 대신 PVC 파이프를 사용도록 한 정부의

태도에 불만을 터뜨렸다. 조문객 최한규(32·광산구 월곡동)씨는 “대통령과 정부 스스로가 진실한 애도를 하겠다고 공표한 마당에 이런 식으로 추도사를 거절하고 만장 지지대로 교체토록 해서야 되겠느냐”라며 “정말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날 광주·전남지역에 마련된 29곳의 분향소와 광주역 등지에서 시민들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했다. 각 관공서도 조기(弔旗)를 게양했다. 그의 육신은 더이상 볼 수 없지만 고인의 뜻을 조문객들의 가슴 속에 그대로 남았다. /이종희기자 gilee@kwangju.co.kr

광주 북구~장성군 연결도로 개통

광주시 북구와 장성군을 연결하는 시·도간 경계도로가 개통됐다.

29일 북구에 따르면 전남 북구 오룡동 치촌마을 앞 도로개설 현장에서 송광은 북구청장과 이 청 장학관 등 내·외빈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오룡동~장성군 남면 경계도로’ 개통식을 가졌다.

이 도로는 총 길이 218m, 폭 10m로 총 공사비 5억1천만원을 투입, 지난해 11월 착공한 지 6개월 만에 완공됐다. 이 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병곡현상이 사라지고 교통사고도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구와 장성군은 도로 주변에 첨단과학산업단지가 위치해 있는데다 주요 유통도로 역할도 하고 있어 두 지역의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송광은 북구청장은 “이번 도로개통을 통해 두 지역간 활발한 물류교류 등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희기자 gilee@



해수 유입 주택 등 피해

29일 새벽 3시경 진도군 의신면 도목리 마을 일대에 해수가 들어와 주택 10채와 과종 못자리 30단지(10만㎡)가 침수됐다. 진도군은 전날 마을 진입로 확장공사를 맡은 업체가 수문을 제대로 닫지 않아 만조(0시34분) 때 해수가 유입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진도=박현영기자 hyapark@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20분 해질 19시 40분
달출 11시 18분 달몰 00시 05분

무더위 주춤

기압골의 영향으로 가끔 구름이 끼겠다.

구분	구름	기온
광주	구름 조금	15/28℃
목포	구름 많음	16/23℃
여수	구름 조금	16/24℃
완도	구름 조금	14/24℃
구례	구름 많음	13/28℃
해남	구름 조금	12/25℃
장흥	구름 조금	12/26℃
강진	구름 조금	12/27℃
순창	구름 조금	15/27℃
영광	구름 조금	14/25℃
진도	구름 조금	12/25℃
전주	구름 많음	14/27℃
남원	구름 조금	12/27℃
축산도	구름 많음	15/19℃

바다	풍향	파고	밀물	ebb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1.0~2.5m	목포 06:42	11:58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0~2.5m	여수 01:23	07:40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1.0~2.5m	목포 18:56	19:49

◇주간날씨 기상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31(일)	6/1(월)	2(화)	3(수)	4(목)	5(금)
날씨						
최저/최고	14/29	15/30	16/30	17/26	16/27	17/27

감사 받고 자살한 소방공무원 횡령·유용한公款 1억7천만원

광주시 소방학교의 위탁교육비 1억7천여 만원이 관리 직원에 의해 횡령 및 유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18일부터 9일 간 시 소방학교 정기감사를 실시한 시 감사실은 29일 “지난 2007년과 2008년 소방학교에서 다른 기관으로부터 교육위탁을 받으면서 담당직원이 3천133만여 원을 유용하고, 1억4천370여 만원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이 직원은 자신과 처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9차례에 걸쳐 위탁교육비를 송금했으며, 2007년과 2008년 위탁교육비를 인출한 뒤 모두 시 일면회계에 넣지 않고 일부만 입금하는 방법으로 위탁교육비를 횡령해왔다.

한편 시 감사실은 이날 소방학교를 비롯, 5·18기념문화센터, 시립민속박물관, 시립미술관, 여성발전센터 등에 대한 감사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유현석기자 chadod@

이정섭 담양군수 항소심서도 실형

광주지법 징역 1년 선고

인사청탁과 자체계약 등과 관련해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정섭(60) 담양군수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부(이우용 부장판사)는 29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정섭 담양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으로 징역 1년에 추징금 5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 및 재판기록을 종합해 볼 때 공소사실 대부분이 인정돼 실형이 불가피하며, 1심 형량도 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지난해 7월 송진 및 채용 대가로 4명으로부터 3천500만원을 받고, 관급 자체계약과 관련해 납품업자로부터 2천만원을, 문중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천만원을 받는 등 총 6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정호기자 choice@

TV 영결식 지켜보던 노인 숨져

○전북 군산에 서 한 80대 노인이 TV를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을 지켜보다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숨지는 사건이 발생.

○29일 오전 8시30분께 군산시 나운동의 한 아파트에서 고모(83)씨가 호흡 곤란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오전 9시30분께 결국 숨졌다.

○고씨의 딸(53)은 “노 전 대통령의 발인식이 있던 새벽부터 소파에 앉아 TV를 보던 아버지가 갑자기 감정이 격해져 ‘숨이 안 쉬어진다’고 말했다. 숨이 안 쉬어진다”고 말했다.

○딸은 또 “아버지가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29일부터 ‘애들하고 가슴이 아프다’며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해 25일 병원에 가 진찰을 받았지만 지방이 고혈압 외에 다른 문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합격을 가장 많이 시킨 회원만이 공무원합격의 Know-How를 안다! www.hanbitgosi.co.kr

7·9급 공무원 합격의 해법은 한빛에 있다!

합격선박은 심적입니다. 2008.9.27. 7·9급 합격자 발표. 합격률 100.0%.

한빛최고의 합격시스템. 전국 최강의 강사진, 최고의 시험에서 당선은 수감함을 전과가 있습니다.

2008.9.27. 합격자 발표. 합격률 100.0%. 합격자 수: 100명.

7·9급 공무원 합격의 해법은 한빛에 있다! 6월 1일 개강 6월 1일 개강 6월 1일

6월 합격개설강좌: 행정직/세무직/검찰직/법원직/소방직/경찰직/교육행정직/사회복지직/농업직/기술직 = 전직종 첫번!

= 합격을 신뢰할 수 있는 가장 믿음직한 학원! = 無等과 만나세요!! =

7·9級 공무원 소직렬

3040 눈높이 주부반모집

시험일정 및 채용인원: 시험일: 31(일), 6/1(월), 2(화), 3(수), 4(목), 5(금). 채용인원: 7·9급 국가직 9-4인명, 지방직 4-5인명.

개강: 6월 1일 (주·야 통합반 모집). (현재상당접수중)

본 학원 강의 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 행정학, 교육학, 세법, 회계학, 형사법, 민사법, 헌법, 경제학, 교정학, 복지학, 소방학, 법, 공중보건학, 상식, 기타.

수강료 25% D/C, 교재 15% D/C, 수강료 50% D/C, 교재 15% D/C.

www.mdgosi.co.kr 222-4560

전경 및 경찰행정학과 특례생 여승공체

경 찰

전국 최강의 교수진, 합격 보장! 전문 시스템 원장 안명섭

개강 매월 초(합격시스템)

※6개월과정 광주지역 서재형, 오경수 합격

6개월과정: 2개월 3회 반복학습, 영어기본이 된 수강생 한한, 수강료 25% D/C, 교재 15% D/C.

1년과정: 2개월 6회 반복학습, 영어기본이 된 수강생 한한, 수강료 50% D/C, 교재 15% D/C.

합격개출 1위 교수진: 경 찰 70% 합격률, 폭풍 빠져 쉽게 경 찰, 2년 2년.

경 찰 학과 모한: 신경찰청장 기본직강, 남부경찰청장 직강, 광주매가경찰청장 직강.

수사 차주운: 2년 2년, 광주순찰대원 직강, 광주매가경찰청장 직강.

www.gmega.co.kr 226-5050